

<정답 및 해설>(㉠책형)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②	①	②	①	④	②	③	①

수험생 여러분!

모두 애쓰셨습니다.

박스형 문제가 16문제나 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도도 작년 국가직 9급 시험보다 훨씬 어려웠구요.

상대평가인 시험이므로 성급하게 낙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실한 답은 아니지만 답이 궁금한 학생들을 위해 가답안을 올립니다.

해설은 순차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답] ② [어문 규정. 난이도 下]

[풀이] 로마자 표기법 중 표기상의 유의점 제2항과 관련된 문제이다.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반구대’는 ‘Bangudae’로 적되, [방우대]로 잘못 읽을 수 있으므로 ‘Ban-gudae’로 적을 수 있다. 비슷한 예로, ‘중앙(Jung-ang), 세운(Se-un), 해운대(Hae-undae)’가 있다.

2. [정답] ③ [비문학. 난이도 下]

[풀이] ‘언간(諺簡)’은 언문 편지라는 뜻으로, 한글로 쓴 편지를 낫잡는 뜻으로 이르던 말이다. 지문의 맨 마지막 문장에 나오듯이 한문 간찰은 사대부 계층 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었지만,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

[오답]

- ①: 지문의 첫 문장에 의하면 ‘언문’과 ‘언간’은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다고 나온다. 하지만 이것이 중심 내용은 아니며, 마지막 단락의 ‘그러나’ 이후에서 주제를 찾아야 한다.
- ②: 두 번째 단락에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으로 인해 ‘언간’이 ‘내간(內簡)’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고 나온다. 하지만 뒤의 ‘그러나’를 통해 이 내용이 부정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역시 일치하는 내용이지만 주제가 아니다.

3. [정답] ③ [문법. 난이도 中]

[풀이] ‘-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쳐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며, ‘-며’로 바꿔 쓸 수 있다.

[참고] ‘-고’: ① 대등. 예) 여름에는 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② 계기(잇달아 일어남). 예) 오빠는 나에게 얼른 눈짓을 하고는 나가 버렸다. ③ 지속. 예) 어머니는 나를 업고 병원까지 달려가셨다.

[오답] 나머지는 조사에 대한 설명이 모두 적절하다.

4. [정답] ③ [쓰기. 난이도 下]

[풀이] 하나의 주제에 어울리는 것을 통일성이라고 할 때, ③번은 글의 주제에 적절하지 않다. 글은 ‘수학 선생님 덕분에 재미있게 된 수학 시간’이 주제이다. 그런데 ③번은 ‘수학 선생님의 아들’에 관한 문장이므로 통일성을 해친다.

5. [정답] ③ [문학. 난이도 中]

[풀이] (가)는 ‘내 마음을 배어 내어 달을 만들어 임 계신 곳에 비추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 (나)는 부끄러워 임에게 이별의 말을 못하고 돌아와 홀로 흐느끼는 소극적인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오답]

- ①: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나)의 ‘달’은 작품의 배경 구실을 한다. 임의 모습을 더욱 생각나게 하는 소재이며,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②: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이 작품의 주체일 뿐,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다.
- ④: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가)의 ‘장천(長天)’은 달이 걸려 있는 공간일 뿐이다.

[참고] (가) 정철의 시조.

주제: 임(임금)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마음

특징: 추상적 대상인 ‘마음’을 구체적 사물인 ‘달’로 형상화함.

내용: 유배지에서 임금인 선조에 대한 그리움과 충성심을 노래한 충신 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

(나) 임제, 무어별(無語別: 말 없는 이별)(한시)

주제: 이별의 슬픔(이별의 안타까움)

열다섯 아리따운 아가씨가	十五越溪女(십오월계녀)
남부끄러워 이별의 말 못 하고	羞人無語別(수인무어별)
돌아와 겹겹이 문을 닫고는	歸來掩重門(귀래엄중문)
배꽃 비친 달 보며 흐느낀다	泣向梨花月(읍향이화월)

6. [정답] ④ [문학. 난이도 中]

[풀이] 화자는 겨울 간이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그리웠던 옛날을 떠올리며 톱밥을 난로에 던지고 있다. 이것은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공감하고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오답]

- ①: 간이역의 대합실에는 한 대의 난로가 있고, 모두 말 없이 쓸쓸하게 있는 분위기이다. ‘조용하고 편안함’을 뜻하는 안온(安穩)한 상황이 아니다.
- ②: 푸른색(차가움)과 붉은색(따뜻함)의 색채의 대조는 있지만 단순히 눈 오는 겨울 풍경의 서정적 정취를 강조한 것이 아니다.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구절과 함께 이해했을 때 ㉠은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과 관련되며, 쓸쓸한 분위기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비관적(悲觀的), 무례(無禮)’와는 관계가 없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암시한다.

[참고] 광재구, <사평역에서>(1983)

성격: 애상적, 감각적, 묘사적, 회상적

어조: 고요하고 나직하며 삶의 애환이 드러나는 연민과 아픔을 드러내는 애상적 어조

주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

특징: 이 시를 소재로 해 만든 소설이 임철우의 <사평역>(1984)이다. 시인의 친구인 소설가 임철우는 소설에서 1인칭의 화자가 수배중인 운동권 대학생이었음을 참고하면 이 시를 재미있게 읽는 데 도움이 된다.

7. [정답] ④ [문학. 난이도 上]

[풀이] 장인과 소작인들 사이의 뒷거래가 맨 마지막에 있지만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 요약적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그림 그리듯 나와야 한다.

[오답]

- ①: 마름(: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인 장인의 특성을 ‘호박개(: 뼈대가 굵고 털이 복슬복슬한 개)’라고 생김새에 빗대어 비하하고 있다. 장인을 개에 빗대었으니 해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이놈의 장인님’이라는 구절을 통해 비속어와 존칭어를 혼용한 해학적 표현을 구사했다.
- ③: 여러 정황을 제시해 욕 잘 하고 욕심 많은 장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참고] 김유정, <봄봄>(1935)

주제: ① 순박한 시골 남녀의 사랑. ② 의문스러운 주인과 우직한 ‘나’ 사이의 해학적 갈등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구성: 역순행적 구성

표현: 해학적(우둔한 ‘나’, 적극적이지만 이중적으로 느껴지는 점순, 의문스러운 장인)

8. [정답] ④ [한자어. 난이도 上]

[풀이]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한자어는 ‘협상(協商)(도울 협, 장사 상)’이다. ‘협상’은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함을 뜻하며, ‘협의(協議)’와 비슷한 말이다. 예를 들어, ‘임금 협상, 노사 협상’ 등으로 쓰인다.

[오답]

- ① 협찬(協贊)(도울 협, 도울 찬): ①힘을 합하여 도움. ②어떤 일 따위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줌. 예) 광고 협찬. 방송사의 협찬.
- ② 협주(協奏)(도울 주, 연주할 주): 독주 악기와 관현악이 합주하면서 독주 악기의 기교가 돋보이게 연주함. 또는 그런 연주. 예) 협주곡.
- ③ 협조(協助)(도울 협, 도울 조): 힘을 보태어 도움. 예) 협조 요청. 관련 기관의 협조.

9. [정답] ① [한자. 난이도 上]

[풀이] ‘원고의 잘못을 바로잡아 책을 완성한다.’는 문장에 어울리는 한자어는 ‘교정(校訂)(바로잡을 교, 바로잡을 정)’이다. 남의 문장 또는 출판물의 잘못된 글자나 글귀 따위를 바르게 고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이 선생의 글은 철저한 교정이 필요해 보여.’의 형태로 쓰인다. 비슷한 단어로, 책의 글자나 틀린 곳을 고쳐 바로 잡는다는 뜻의 ‘개정(改訂)’ 역시 ‘바로잡을 정’을 쓴다.

[참고]

교정(矯正)(바로잡을 교, 바를 정): ①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예) 자세 교정. 치아 교정. ② <법률> 교도소나 소년원 따위에서 재소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음. 예) 갇생을 위한 교정 프로그램.

교정(校正)(바로잡을 교, 바를 정): 교정쇄와 원고를 대조하여 오자, 오식, 배열, 색 따위를 바르게 고침. 예) 교정을 안 했는지 책에 오자가 많다.

[오답]

- ② 교차(交叉)(바꿀 교, 갈래 차):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침. 예) 교차 검토. 만감의 교차. 두 직선의 교차.
교차(交差)(바꿀 교, 다를 차): 벼슬아치를 번갈아 임명함.
- ③ 결재(決裁)(결단할 결, 마를 재):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재가(裁可)로 순화. 예) 전자 문서에 결재를 받다. 서류 결재.
결제(決濟)(결단할 결, 건널 제):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 예) 카드 결제. 어음 결제.
- ④ 재고(再考)(다시 재, 생각할 고): 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함. 예) 계획을 재고하다. 재고의 여지가 없다.
제고(提高)(끌 제, 높을 고): 쳐들어 높임. 예) 생산성 제고. 경쟁력 제고.

10. [정답] ② [비문학. 난이도 中]

[풀이] ㉠은 ‘부패(腐敗)’가 식품인지 비유적인지 구별하지 못해 생긴 ‘애매어의 오류’이다. 애매어의 오류는 둘 이상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의 의미를 명백히 분리하여 파악하지 않고 혼동함으로써 생기는 오류이다. 예를 들어, ‘죄인은 감옥에 간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하셨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감옥에 가야 한다.’가 있다. ‘죄인’을 세속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로 나누지

않고 혼동해 나타난 오류이다.

[오답]

- ①: 논리적으로 결함이 없는 3단 논법의 ‘연역 추론’이다. 참고로, ‘우연의 오류’의 예는 ‘거짓말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암 진단 사실을 환자에게 거짓말로 알린 의사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가 있다.
- ③: ‘분할(분해)의 오류’이다. 전체 또는 집합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나 원소들도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오류이다. 예를 들어, ‘그는 우리나라 고교 최고의 투수임이 틀림없어. 그의 팀이 이번에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서 우승했으니깐.’가 있으며, ㉠에 해당한다. ㉡은 ③번의 반대인 ‘결합(합성)의 오류’이다. 예를 들어, ‘이 오케스트라의 구성원은 모두 일급 연주가들이기 때문에, 이 오케스트라는 최고입니다.’가 있다.
- ④: ‘순환 논증의 오류’이다. 결론에서 주장하는 바를 논거로 제시하는 오류, 같은 내용을 말만 바꾸어 계속 되풀이하는 오류이다.

11. [정답] ③ [비문학. 난이도 中]

[풀이] 제시문은 ‘유추(類推)’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를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에 빗대어 말했고, ③번 역시 인생을 마라톤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함을 ‘유추(類推)’라 하는데, 생소하거나 복잡한 개념이나 주제에 대해 보다 친숙하고 단순한 다른 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오답] ①: ‘세상을 향한 창과 같다.’라는 비유(직유법)가 사용되었으나 이것을 유추로 보기는 어렵다. 단순한 표현법일 뿐 글이 전개되는 설명 방식이 아니다. ②: 분석(分析). ④: 예시(例示).

12. [정답] ③ [비문학. 난이도 下]

[풀이] 제시문에 의하면 고갱은 인상주의에 대해 불만을 품었고,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것을 열망했다. 그래서 고갱은 다양한 형태의 프리미티비즘을 이끌어 냈다.

[오답] 나머지는 모두 제시문의 내용과 부합한다.

[참고] 프리미티비즘(primitivism): <예술> 원시 시대의 예술 정신과 표현 양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대 예술에 접목하려는 예술 사조.

13. [정답] ② [어문 규정. 난이도 下]

[풀이] ‘제3 장’이 원칙이고, ‘제3장’을 허용한다. 이때, ‘제(第)’는 차례를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오답]

- ①: ‘좋은 걸’의 ‘걸’은 ‘것은’의 구어체이므로 띄어 쓴다. 만약, ‘-좋은 걸.’이라고 종결형으로 쓰게 되면 ‘-근걸’이 종결 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참고로, ‘웬걸’은 감탄사이므로 붙여 쓴다.
- ③: ‘진행한 지’의 ‘지’는 시간 앞에 쓰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④: ‘10년 차’의 ‘차(次)’는 ‘주기나 경과의 해당 시기’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그 이외에도 ‘번’, ‘차례’를 뜻하는 ‘수십 차’

와 ‘잠이 막 들려던 차’처럼 ‘기회나 순간’을 뜻할 때도 띄어 쓴다. 다만, ‘연구차, 인사차, 사업차’ 등처럼 ‘목적’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차(次)’는 붙여 쓴다.

14. [정답] ① [문법. 난이도 中]

[풀이] ‘깎는’은 ‘[깎는](음절의 끝소리 규칙)→[깎는](비음화)’으로 변하면서 모두 교체 현상이 나타난 경우이다. 이것을 탈락으로 보아서 안 된다.

[오답]

- ②: ‘깎아[까까]’는 모음 어미가 와서 연음(連音)이 나타난 것일 뿐 탈락이 아니다.
- ③: ‘깎고[깎꼬]’는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나타난 것일 뿐, 도치가 아니다. 참고로, ‘도치’는 ‘빋복→배꼽’처럼 ‘ㅂ’과 ‘ㄱ’의 위치가 바뀐 예가 있다.
- ④: ‘깎지[깎찌]’는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나타난 경우이다.

15. [정답] ② [비문학. 난이도 上]

[풀이] ‘추론’ 문제였기 때문에 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해야 한다. 글의 내용에 바탕으로 두고 선택지의 의미를 객관화해야 한다. ‘포스트휴먼’은 기본적인 능력이 현재의 인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서는 더 이상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병이나 노화’ 등의 한계를 인간의 신체적 결함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새로운 인간형이 탄생할 것이라고 단정한 것도 아니다. ‘포스트휴먼’ 개념은 기존 인간의 능력에다가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상상해 만든 슈퍼 인간의 모습을 기술한 용어일 뿐이다.

[오답]

- ①: 포스트휴먼의 개념에 따라 제시되는 미래의 존재는 유전 공학이나 인지 기술과 같은 다양한 과학 기술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세 번째 단락).
- ③: ‘포스트휴먼’이 어떤 존재일지 지금은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으므로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두 번째 단락).
- ④: ‘포스트휴먼’은 현재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이므로 기존의 인간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인간의 개념이 구성될 것이다(첫 번째 단락).

16. [정답] ① [어휘. 난이도 上]

[풀이] ‘크다/작다’는 중간항이 존재하는 반대 관계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보통’이라는 개념이 있으므로 한 단어의 부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①번의 설명은 ‘있다/없다’, ‘죽다/살다’, ‘남자/여자’, ‘움직이다/정지하다’, ‘유죄/무죄’처럼 중간항이 없는 모순 관계에 해당한다.

[오답]

②: ‘출발/도착’은 사이에 ‘오는 중’, ‘가는 중’처럼 중간항이 있으므로 반대 관계에 해당한다.

③: ‘참/거짓’은 중간항이 없는 모순 관계이다. 한 단어의 부정은 다른 쪽 단어의 긍정을 함의(含意, 뜻을 포함함)한다.

④: ‘넓다/좁다’는 중간항이 있는 반대 관계이다. ④번의 설명은 중간항의 유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반의 관계를 뜻한다.

[참고]

1. 모순 관계: 중간항이 없는 관계. 예) 남자/여자, 있다/없다, 실명/가명 등.

2. 반대 관계: 중간항이 있는 관계. 예) 크다/작다, 진보/보수, 뜨겁다/차갑다 등.

3. 상대 관계: 대응되는 다른 개념을 통해서 이해되는 단어로, 그 의미가 정반대가 되는 관계. 예) 아버지/자식, 스승/제자, 남편/아내 등.

17. [정답] ④ [고전 문법. 난이도 上]

[풀이] ‘알외시니’는 ‘알리시니’라는 뜻이며, ‘알-(어근)+오-(사동접미사)+이-(사동접미사)+시-(주체높임 선어말어미)+니(종결어미)’로 분석된다. 따라서 ‘-외-’는 두 개의 사동이 결합한 접미사로 기능한다. 비슷한 예로, <소학언해> 중 ‘몸을 세워’가 ‘서--+이--+우--+다’처럼 이중의 사동으로 분석되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현대 국어에도 ‘채우다, 세우다, 채우다’ 등이 있다.

[오답]

①: ‘술벗리’는 ‘아될 사람(이)’를 뜻하며, 이때 ‘-이’는 ‘사람’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다. 이때, 주격 조사 ‘이’는 ‘ㅣ’ 모음 다음이므로 탈락한다.

②: 높임 선어말어미는 ‘-시-’일 뿐 ‘-아시-’가 아니다.

③: ‘하디’는 ‘많지만’을 뜻하므로 이유가 아니라 역접의 연결 어미이다.

[참고] <용비어천가> 13장

말쌈물 술벗리 하디 天命을 疑心호실씨 꾸므로 뵈아니 /
놀애를 브르리 하디 天命을 모르실씨 꾸므로 알외시니

말쌈을 (무왕에게) 여쭙 사람이 많지만, (무왕은) 천명을 의심하시므로 (하늘은) 꿈으로써 재촉하시니 /
노래를 부를 사람이 많지만, (이 성계는) 천명을 모르시므로 (하늘은) 꿈으로 (그 천명을) 알리시니

주제: 하늘의 계시(啓示)

핵심어: 천명(天命)

형식: 2절 4구체의 대구.

배경 고사: 주나라 무왕이 문왕을 이어 즉위함에 많은 제후들이 모두가 주를 치라고 권했으나 무왕은 천명을 모른다 하여 거절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 주의 학정은 점점 더해 갔으므로, 무왕은 내 꿈으로 보나, 내 점으로 보나 하늘의 뜻이 내게 있다 하고 드디어 주를 치게 된 것이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무렵, 나무 아들(=李)이 나라를 얻을 것이란 노래가 있었고, 또 이성계에게 임금이 되기를 권한 사람도

많았으나, 이성계가 하늘의 뜻을 모른다하여 거절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성계의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금으로 된 자를 주면서, 나라를 바로잡으라고 했으므로 드디어 결심하기에 이른 것이다.

18. [정답] ② [비문학. 난이도 上]

[풀이] 우리나라는 송편을 풍년과 발전의 상징으로 여겼다. 특히 신라는 ‘반달’이라는 글귀를 통해 앞으로 크게 발전할 징표로 예언이 되었고, 이때부터 반달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이며 송편을 반달 모양으로 빚었다. 그러므로 신라인들의 미래에 대한 기원이 송편에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오답]

①: 중국의 제수 용품인 송편이 점차 제례 음식으로서 위상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③: 한국에서 비빔밥을 만들 듯이 중국에서 월병을 만들었다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음식을 비교한 것이다. 중국이 한국의 비빔밥을 본떠 월병을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④: 『삼국사기』에서 점술가가 예언한 내용이 백제와 신라의 역사에 적중했다는 지적은 있으나, 점술가의 예언으로 인해 신라가 크게 발전했다고 볼 수는 없다.

19. [정답] ③ [문학. 난이도 中]

[풀이] 김만중의 <구운몽(九雲夢)>은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로 된 몽자류 소설이다. ㉠은 ‘천상 세계’의 현실이고, 나머지는 ‘인간 세계’의 꿈이다. 과거에 양소유가 성진이었을 때 육관 대사(사부)의 제자로 십 년간 지냈으므로 ㉡이 가장 앞선 사건이다. 이후 성진은 꿈에서 양소유가 되어 인간 세계에서 지냈으므로 ㉢이 이후 사건이다. 양소유는 꿈속인 인간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다시 꿈을 꾸게 되며 꿈속에서 육관 대사를 만나게 되므로 ㉣이 세 번째 사건이다. 그리고 현재 육관 대사를 꿈속인 인간 세계에서 만났으므로 ㉤이 가장 마지막 사건이 된다.

[참고] 김만중, <구운몽(九雲夢)>

주제: 인생무상(人生無常)과 허무의 극복

의의: 최초의 몽자류(夢字類) 소설

종류: 국문 소설, 영웅 소설, 양반 소설, 염정(艷情, 남녀 간의 사랑) 소설, 액자 소설.

배경: 시간적 - 당나라 때, 공간적 - 중국 남악 형산의 연화봉(현실), 중국 일대(꿈).

20. [정답] ① [문학. 난이도 中]

[풀이] 승상이 된 양소유는 처음에는 육관 대사(사부)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에 육관 대사는 ‘귀인이 잘 잊는다는 말이 옳도소이다.’라며 양소유를 질책한다. 이러한 말에 양소유가 육관 대사를 자세히 보고 과거 꿈에서 육관 대사(화상, 노부)를 보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오답]

②: 승상은 열대여섯 살 전에는 부모 슬하를 떠나지 않았다 하여 자신

이 과거 ‘중’(육관 대사)의 문하생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 ③: 승상이 ‘중’의 술법을 보고 그것을 환술이라 지적했다. 자신에게 정도를 보이지 않고 환술을 보였다고 지적한 것은 승상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지 여덟 남자를 사라지게 한 환술을 부렸음을 확인하거나 ‘중’의 진의를 의심한 것이 아니다.
- ④: 승상은 ‘중’이 자신의 죄를 정벌했다고 깨닫지 않았다. 승상은 자신이 남악에 가서 놀았을 때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했다고만 지적했다.

<2018년 국가직 9급 국어 총평>(㉠책형)
(天衣無縫 정원상 국어)

1. 출제 결과 (평가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유형	2017년(상반기) 문항수	2018년 문항수	비율
1	비문학	2	6	30%
2	문학	7	5	25%
3	어문 규정	2	2	10%
4	문법	2	2	10%
5	한자, 한자어	2	2	10%
6	어휘	2	1	5%
7	고전 문법	1	1	5%
8	쓰기	0	1	5%
9	한자 성어	1	0	0%
10	언어와 국어	1	0	0%

2. 최근 치렀던 국가직 9급 국어 문제 중 가장 어려웠습니다.

- 작년 국가직 9급 국어 문제가 대체로 쉬웠던 반면 올해는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비문학 독해, 문학의 이해, 한자의 지식, 고전 문법 등에서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비문학과 문학의 지문이 길어서 읽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20분 전후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 전체적으로는 골고루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비문학, 문학, 어문 규정, 문법, 한자 등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2017년 국가직(상반기, 하반기) 9급 시험에서는 문학이 가장 많이 출제된 것과 달리 이번 시험에서는 비문학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유형과 난도가 2016 국가직 시험과 유사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작년 기출문제만이 아니라 2년 전 문제들까지도 유형을 꿰뚫고 있어야 하며 어려운 시험에 늘 준비해야 합니다.
- 체감 난도와 실질 난도가 높았기 때문에 평소에 90점 이상 나오던 수험생들이 대체로 70점대로 20점 이상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직렬에 따라 다르지만 합격을 위해서는 최소 75점 이상은 나와야 하고, 85점 이상이면 최상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시간이 실력이다!

- 2017년 국가직 9급에서 박스형 문제가 12문제 출제되었던 것과 달리 올해 시험에서는 16문제나 출제되었기 때문에 지문을 읽고 푸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어에서 20분 이상이 걸리면 다른 과목에도 치명적인 시간 누수가 발생하므로 연쇄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국어 과목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수험생들이 가장 먼저 푸는 과목이고, 고득점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지문이 길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국어 시간에 대한 전략을 잘 짜는 것이 합격의 첫 관문이 됩니다.
- 비문학 문제가 6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비문학 지문의 길이가 늘고

독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앞으로의 추세입니다. 올해는 비문학 순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지만, 주제, 일치, 추론, 오류, 설명 방식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적합한 사실적 이해 문제가 많았고, 추론형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문에 대한 독해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문학 독해는 시간 조절 능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꾸준히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주제, 일치, 제목, 추론, 순서, 논지 전개 방식, 토론 등 다양한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4. 지식이 아니라 이해와 논리가 중요하다!

- 이번 시험을 계기로 공무원 국어 시험의 경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기 위주의 지식 확인 문제보다 사고력, 논리력, 추론 능력 등 독해 능력을 검증하는 21세기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지문을 빨리 읽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양한 비문학 문제들을 통해 논리적으로 문장을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500자 이내의 단문 독해를 바탕으로 하되, 1000자가 넘는 장문 독해도 매일, 매주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BS 등 수능식 지문을 보는 것보다는 기존 공무원 시험 중 법원직, 국회직, 7급 시험 지문과 문제들을 자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 형태를 활용하는 수능 문제는 공무원 유형과는 다소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새 지문’이 아니라 ‘기존 지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5. 문학 역시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 현대시와 현대 소설 등 현대 문학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고, 한시와 시조, 고전 소설 등 고전 문학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식 중심의 문학이 아니라 감상과 분석 위주의 문학 문제가 많았습니다. 본디 국가직은 서울시와 달리 지식 문학이 거의 출제되지 않지만 올해 시험은 특히 감상, 이해, 분석이 필요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정확한 문학 문제 풀이를 위해서는 문학 작품을 잘 감상하고 선택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단편적으로 암기하는 ‘무엇’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감상하는 ‘어떻게’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국가직 9급에 정희성의 <저문 강에 삼을 씻고>라는 1970년대 시가 나왔고, 올해 시험에 박재구의 <사평역에서>라는 1980년대 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문학사적으로 유명한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최근의 시도 읽고 감상할 수 있어야 하며, 소설의 시점이나 서술의 특징, 문학 작품의 함축적인 내용도 파악해야 한다. 문학의 범위가 넓고 작품이 방대하지만 다양한 작품과 함께 감상을 위한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시된 문학 작품이 대체로 EBS에 수록된 작품이므로 6차, 7차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개정 교육과정의 작품들을 두루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6. 고난도 문제가 7문제나 있습니다.

- 7번(현대소설의 이해), 8번(적절한 한자어), 9번(한자의 표기), 15번(비문학 추론), 16번(반의 관계 어휘), 17번(용비어천가 문법), 18번(비문학 일치) 문제 등에서 학생들이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한자

공부의 필요성을 새삼 느꼈을 것이며, 비문학 독해, 문학의 이해, 고전 문법 등도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한다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보통 고난도 문제가 5문제 정도인데 비해 이번 시험은 7문제나 고난도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 내의 다른 선지들과 관계를 파악해 보면 정답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선택지에 대한 감(感)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전체적으로 골고루 출제되었으나 올해 나오지 않은 영역이 있어서 내년에 출제될 유형이 있습니다.

- 2017년 문제와 중복되는 유형인 비문학,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한자, 띄어쓰기, 단어 간의 관계, 고전 문법 등이 다시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에 나오지 않아서 2018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음운의 변동, 로마자 표기법, 조사와 어미, 오류, 비문학 추론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 반면, 품사, 형태소와 단어, 언어 예절, 복수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문장 부호, 어법, 비문학 순서, 고유어, 속담, 한자 성어, 가사 등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시험에는 전 영역을 다양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8.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 우선, 전체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었으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다음 시험에는 기회가 또 올 겁니다. 시험을 잘 본 학생들에게는 큰 칭찬을, 시험을 잘 못 본 학생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보냅니다. 지금 낙담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음 기회에 더 귀하게 쓰기 위해 시련을 주는 것일 겁니다. 반성은 하되, 좌절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귀하고 귀한 분들이니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 그리고 어떤 결과이든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고, 주어진 결과를 통해 다음 시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슬퍼하고 속상해하기보다는 냉정하게 현 실력을 직시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합니다. 시험을 ‘못 본 것’이 아니라 ‘아직 모자란 것’입니다. 앞으로 발전할 자신을 믿고, 지방직, 서울시 등 시험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흔들림 없이 전진합시다.
-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오기 마련입니다. 자연의 봄은 그냥 오지만 인생의 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준비하고 침묵할 때입니다. 찬란하고 따뜻한 봄이 여러분 인생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 또한 간절하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응원하겠습니다. 능력의 부족은 있어도 열정의 부족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모든 수험생 여러분! 지난 1년 정말 애 많이 쓰셨고, 누구에게나 불안하고 어려운 시험이지만 굳세게 잘 이겨 내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르신 여러분 모두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미래를 다시 준비합시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